

◆ 특별기고 / SBS 10년을 평가한다 1

21세기 '여성의 시대' 를 이끌어 갈 방송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며

박 영 숙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이제는 생명이다”
SBS에 크게 붙어있는 캠페인 캐치프레이즈를 보며 앞서가는 방송의 선견지명을 보는 것 같아 흐뭇한 마음으로 SBS의 프로그램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민영방송으로서 SBS는 특별생방송으로 실직여성가장 돕기, 저소득 모자가정 돕기 방송 등 어려운 여성을 지원하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역시나 하는 기쁜 마음을 갖게 되었다.

미래학자들이 예고하여 온 '여성의 시대' 물결은 'UN의 여성차별 철폐협약'이라는 방향에 따라 세계 각국을 휩쓸면서 바야흐로 우리나라에도 상륙하여 가속도의 위력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타르야 할로넨 의무장관의 핀란드 역사상 첫 여성대통령 당선, 일본 오타 수사에 여성후보의 오사카 부지사 당선 등 새 천년 초반에 언론은 여성의 정치

적 파워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음을 보도했다. 여성할당 30%라는 목표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한국에서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11명을 포함해 16명의 여성위원이 당선되어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승격, 발전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정책 발표 등도 여성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희망과 기대를 주었다.

우리 나라는 이미 여성정책 담당 정부 기구의 설치 운영과 여성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등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기틀은 이미 갖추어 놓았다. 그러나 여성이 실제로 처해 있는 상황은 제도적 보장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평가한 바에 따르면 1998년 한국의 삶의 질은 174개국 중 30위, 여성의 소득, 전문·관리직 진출, 국회의원 점유율 등 3가지로 산정한 여성의 권한지수(GBM)는 세계 102개국 중 83위이다. 또한 스웨

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조사한 여성의 사회적 평등지수는 한국은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데 40위였다. 무역량으로 따지면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여성에 관한 수준은 평균 이하이다.

성차별 사회를 넘어선다는 것은 단순히 여권신장의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시대가 요구하는 특성들을 갖추고, 같이 참여하며, 자아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규범, 새로운 사회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는 3F, 가상(fiction), 감정(feeling), 여성(female)이 중요해지는 사회이고, 소위 여성적 가치로 불리어 온 감정, 섬세함, 유연성이 요구되는 사회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여성의 시대가 오지는 않는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며, 여성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 관행, 제

도에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여기에 언론의 중차대한 역할이 있다. 특히 대중적인 영향력이 큰 방송의 역할은 지대하다 하겠다. 국민 개개인은 사회 변화의 거대한 흐름을 읽기 어렵다. 세계적인 흐름은 앞서가고 있는데 개개인의 의식이나 관행에서의 변화 속도가 뒤처진다면 개인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고통받고 갈등을 겪으며 좌절하게 된다.

방송이 개개인에게 방향과 지표를 제시하고 변화를 이끌어가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여성적이라는 라벨을 붙여 경시해 온 생명중시, 감정, 돌봄, 타자에의 배려 등의 가치를 되살려내고 이런 가치들을 대안적 세계관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세계 속에서 한국 여성의 현주소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의식의 변화 방향은 무엇인지, 사회 구석구석의 소외여성들의 목소리와 움직임을 담아내며,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 지원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SBS 창사 10주년, 유연함을 특성으로 하고 있는 민영방송으로서 SBS는 21세기를 주도할 여성을 위한 방송으로 앞장서주길 바란다. 특별방송 뿐만 아니라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방송의 공영적 기능을 더욱 확대하면서 우리나라의 성숙된 '남녀공동참여사회'의 정착에 기여하는 방송으로서 눈부신 발전을 기대한다.